

만남



대안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06 2025
통권 615호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표지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과 6·25 전쟁을 기억하며, 조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무궁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위에 피어 난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 | |
|------------------|-----------------|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5대 본질



6월
목회력

- | | |
|-------|-----------------------|
| 01 주일 | ·찬양예배 성찬 |
| 08 주일 | ·성령강림주일, 제직회 |
| 15 주일 | ·새가족환영회 |
| 20 금 | ·금요권찰모임 상반기 종강, 심방준비회 |
| 29 주일 | ·교육부 여름사역 비전예배 |

- | | |
|------------|-----------------|
| 07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 13 금 | ·연합권찰모임 |
| 18 수~22 주일 | ·북한선교대회주간 |
| 22 주일 | ·북한선교주일, 사회봉사주일 |
| 30 월~7/5 토 |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

만남

2025년 6월호
통권 615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부르짖음 김운성

특집 통일의 미래로 비상하라

- 05 북한교회 세우기 이철신
- 08 폐려다임 바꾸는 북한선교 김형찬
- 11 복음통일의 비전 미래세대와 공유 한요셉
- 13 영락에 먼저 온 복음통일 이나영
- 15 군선교의 모태교회 영락 김평주

특별 기고

- 18 6·25의 진실을 잊지 말자! 강인덕
- 21 6·25 전쟁고아들의 아버지 딘 헤스 대령 홍성표

만남 그리고 사람들

- 24 은혜로 살아가는 천로역정 승윤영
- 26 진정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김은혜
- 28 주님의 계획 속에 선택되는 삶 김윤영

교회창립 80주년 특별기획

- 30 영화 <죽은 목숨> 순교자 김창화 집사 박명수

다음세대 / 청년광장

- 34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복음·재미 평광 김연주
- 36 청년선교비전과 하기선교 서동현
- 38 청년회 봉사팀, 산불피해현장 위문 전홍진

영락글로벌

- 40 영어로 소통하는 CebC 아이들 이재원
- 42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 찾는 러시아어예배 차안톤

땅끝까지 이르러

- 44 주여, 원주 문마을 축복하소서! 정재훈
- 46 M국 선교 거점…은혜복음교회 현당예배 박유경

영락의 올타리

- 47 영락 나라사랑기도회 이재향
- 48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강하림
- 50 영락가족 행복운동회 이두희
- 52 하나님께 찾는 찬양인도자로 서겠습니다 김영란

교회소식

- 54 전세대가 함께 드린 가족주일예배 외
- 60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 61 새아기·새가정·군입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부르짖음

김 운 성 위임목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 3:9~10)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현충일은 본래는 현충기념일이었습니다. 1956년 4월 25일에 공포된 '현충기념일에 관한 건'(국방부령)으로 '현충기념일'이라고 불리다가, 오늘의 현충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현충일 제정 이유가 6·25 전몰자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에도 6월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간선 제이던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어 민주화의 승리처럼 여겨지는, 소위 6·29선언이 있었습니다. 또 마음 아픈 서해연평해전도 같은 날인 6월 29일에 있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 북서쪽 일대에서 북한의 도

발로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월은 늘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애국 애족을 다짐하면서 호국보훈의 마음을 다지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현재형으로 고통받고 있다 보니 안타깝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최근에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통일이란 민족적 과제도 버린 채, 두 개의 국가로 생각하겠다는 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 혈통이 바뀌는 것도, 유구한 역사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민족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통한 평화로운 통일입니다.

올해도 6월이 왔습니다. ‘그 무렵이면 찾아오는 날’을 기념일이라 부릅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추도일이나 개교기념일, 교회창립일 등이 그렇습니다. 기념일은 성격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족의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사기 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눈물’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백성이 모여서 울었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보김’이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은 남아 있는 가나안 백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김에서 올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어김없이 온 호국보훈의 달 6월 민족과 국가의 현실 마음 무거워

이스라엘의 눈물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지도자 세워주소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벼림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에게 침략당할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과 눈물을 보셨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고통당할 때 백성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옷니엘을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옷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진노를 받았지만, 부르짖으면 사시들을 보내셔서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는 백성은 망국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5월에 나라사랑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정오기도회와 철야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의 성도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듯이, 이 땅에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후손이 더 이상 나라와 민족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될 날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만날**

#통일의 미래로 비상하라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선혈들이 피로써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이기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압제에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복음통일의 걸음을
단 한 순간이라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교회 세우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지상명령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통일 후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그리고 고향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월남한 성도들의 소원이다. 그러므로 월남한 그리스도인이 세운 영락교회는 고향인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

영락에 주어진 사명 '민족복음화'

영락교회는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민족복음화를 사역의 목표로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표어를 "삼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오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로 세우기도 했다.

민족복음화를 외치고 사역한 한경직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은 일제 치하와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이다. 나라가 망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으로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을 절감했다. 단순한 교세 확장만이 아니고, 민족의 정신을 복음 위에 세워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전심으로 사역했다. 그래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대중 전도 집회,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세우기, 복지선교, 학원선교, 군선교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현신적인 사역으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정신이 깐 사람들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었다. 2차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독립했지만, 복음화가 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NGO를 내보내고, 원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철신 원로목사

민족정신이 복음 위에 서야 나라 산다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으로 북한선교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90년대 중반부터 북한교회 재건운동 논의가 일어났다.

2000년대 들어서서 북한선교는 복음통일로 용어를 발전시켜서 사역하고 있다. 복음통일은 민족복음화와 목표를 동일하게 가진다. 통일된 우리 민족의 정신이 복음 위에 서야 나라가 산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족의 정신이 복음 위에 서야 진정한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 진다. 민족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복음 위에 서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나누고 섬기는 나라를 세운다. 복음으로 통일된 우리나라를 자유롭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선진화된 나라가 되고,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복음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사람의 정신을 변화 시켜야,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된다.

북한에 교회를 세우려면

현재도 북한에는 교회가 존재한다. 건물이 아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북한에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 또한 탈북해서 중국에서 예수 믿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 통일되면 이 분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분들과 함께, 탈북한 자유인 성도들이 앞장서고, 남한과 자유세계의 성도들이 기도로 돋고, 함께 헌신해서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도라산전망대에서 본 북한



신의주 영락교회 조감도

북한 전역 12,500곳 목표… ‘사랑의 종교’ 알려야

통일되면, 교회는 가장 먼저 북한 주민을 향한 이웃사랑을 강하게 실천함으로써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북한 27개 주요 도시에 선교센터를 신속하게 세워야 한다. 선교센터에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 훈련원을 함께 두며, 구제를 담당할 구호소, 복지시설, 병원, 학교를 함께 세운다. 그리고 군단위마다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고,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 인구 2,000명당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방 이후 파괴된 3,000여 교회를 포함해 12,500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다.

우리 영락교회는 이미 북한 고향교회 재건을 위해 보유한 현금 기금을 바탕으로 그 교회들을 재건해야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의주와 평북 지역을 사역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교회, 지도자 훈련원, 구호소, 복지시설, 병원, 학교를 세우고, 평북 지역 전체에 교회를 세우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선교센터, 커뮤니티센

터, 교회의 구체적인 입지를 찾는 북한 도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도·일꾼·재정 착실하게 준비해야

우리 영락교회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첫째,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북한교회 세우기를 위해,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둘째, 일꾼을 준비해야 한다. 1 교회당 북한교회 세우기에 훈련된 목회자 1명, 그리고 함께 사역할 훈련된 사역자 10명씩(전도자, 양육자, 교사, 찬양인도자, 사회복지사)을 양성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미 탈북 목회자들은 준비하고 있다.

셋째, 재정과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구제물품을 지원할 구호 시스템과 교회를 세울 기금(건축비, 운영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영락교회는 민족복음화를 목표로, 시대에 맞는 선교 사역을 힘써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 왔다. 해오던 사역들을 계속 잘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을 돋고, 통일 후 북한교회 세우기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영락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복음으로 통일된 우리나라라는 제사장 나라, 선진화된 나라가 될 것이다. **만날**

* 자세한 내용은 영락교회 홈페이지, 이철신 원로목사 홈페이지, 북한교회 세우기 강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패러다임 바뀌는 북한선교 건물 →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북한선교부 임원 분들과 북중접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단둥시에서는 두 개의 다리를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북한의 신의주와 단등을 잇는 무역 철교로, 무역을 위한 기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간에 끊어진 채로 남아 있는 다리, 이른바 단교였습니다.

단교는 중국 쪽 절반이 남아 있지만, 북한 쪽 절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둥시의 음식점들에서는 북한 여성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의 말씀으로는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 중국에 파견한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중국인 손님들에게 노래와 악기 연주 공연이 주된 일이었는데, 우리 교회 자유인 청년들보다 훨씬 어린 그들이 적은 보수를 받고 중국 땅에서 일하는 것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김형찬 목사
북한선교부
강서·구로·양천구교

김정은의 폭주… 단절의 골 깊어가는 한반도

우리는 북한 땅 가까이 있지만, 그곳에 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즈음 북한의 상황을 보면 단절의 골이 더 깊어져 갑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절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도 지시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적대적인 두 국가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 전쟁에 북한 청년들을 군사로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북한선교 멈출 수는 없어

외적 상황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통일이 어두워진 시대처럼 보입니다. 남북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화해와 평화는 요원합니다. 그 갈등과 단절 속에서 북한 동포들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남한의



북중접경지역을 방문한 북한선교부 임원들



운행중인 무역철교, 오른쪽이 끊긴 단교

국민들에게는 통일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 남북간의 단절 속에서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선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요즘 북한 선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선교에서 '사람을 세우는 선교'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합니다. 작년 북한선교대회의 표어처럼 '더딜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선교부는 올해 북한선교대회를 준비하며 '통일의 미래로 비상하라'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에는 우선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다음세대를 준비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기도

2025년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첫째, 전교인이 참여하는 선교대회의 많은 활동을

통해 복음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다음세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 복음통일을 위해 쓰임받을 자유인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남북을 모두 경험한 자유인이 복음 안에서 변화될 때, 그들은 훗날 북한과 자유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전파자가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북한선교부는 그동안 복음통일을 염원하며 자유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올해도 자유인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 비전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복음통일의 날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와 다음세대들의 마음 속에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먼저 내려온 자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올해도 복음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통일의 미래로 함께 비상합시다! **만남**

2025 북한선교대회

통일의 미래로 비상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3:5,10)

6월

북한선교대회
주요일정

1일(주일)	오후1시	자유인예배 700회 기념 감사예배	선교관
4,11,18일(수)	수요1,2부	북한동포사랑기도회, 간증 및 영상	본당
14일(토)	오전9시	송악기도처 기도회	송악기도처
20일(금)	오후7시30분	북한선교 금요기도회	본당
	1-5부	북한선교주일 예배 및 공동기도문, 흥보영상	본당
	오후1시30분	북한선교 대학부청년회 연합예배 및 세미나	베다니홀
22일 (북한선교주일)	오후1시	영화상영 '비욘드 유토피아'(탈북, 2024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후보)	선교관
	오후5시	찬양예배(김정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본당
	종일 ※	본당 앞 전광판(복음통일 문화콘텐츠 상영),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카드 작성 교육부 공모전 전시, 북한문화체험(속도전 떡-자유인예배부)	베다니광장

※ 독일복음통일 비전트립 : 7월 10일(목)~7월 16일(수) 자유인청년과 함께하는 '통일의 나라로 비상하라'

2025년 북한선교주일 현금은 다음 내역으로 사용될 것 입니다.

- 북한교회 재건기금
- 복음통일 인재육성(복음통일 장학금, 복음통일 캠프)
- 자유인 목양 사역 지원
- 송악기도처 환경 개선

송악기도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복음통일의 비전 미래세대와 공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애굽기 3:5,10)



산천초목이 푸른 에너지로 가득한 6월은 그 푸르름에
저절로 밝은 마음이 동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민족의 비극 6·25가 마음을 엄숙하게 누르는 계절입니
다. 어느덧 분단 8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로하신 할
아버지 할머니 세대만이 유일하게 남북이 하나였던 시
절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은 남북 분단을 당연
시하고, 통일보다는 각자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
는 시대입니다.

북한선교부는 ‘통일의 미래로 비상하라’는 2025년 북한
선교대회 표어 아래, 미래세대에 주목하며 이들과 함께

복음통일의 비전을 나누는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에는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에게 복음통일
이 무엇인지, 왜 통일이 필요한지, 우리가 왜 통일을 이
루어야 하며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복음통일 문화콘텐츠 공모전 마련

대학부·청년회 연합예배에 이어, 대학부와 청년회를 대
상으로 한 복음통일세미나를 통해 민족의 아픔을 인식
하고 공감하며, 예배를 통한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일반 성인들은 통일
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보
기 위해 복음통일 문화콘텐츠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유튜브 쇼츠 등 솟폼 콘텐츠 형식을 통해
우리 교회의 젊은이와 기성세대가 복음통일과 북한선
교에 대한 생각, 주장, 그리고 소망을 자유롭게 표현하
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요셉 안수집사
북한선교부 차장
강남교구

다니엘처럼… 송악기도처, 교회서 기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믿음과 기도의 삶으로 기억되는 성경 인물입니다. 북한선교부도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6월 14일(토) 송악기도처에 올라 북한 땅 개성을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복음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 북한동포사랑기도회는 6월에는 특별히 4일, 11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고통받는 북한 땅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복음통일기도회는 6월 20일 북한선교 금요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복음통일을 위한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며, 펫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누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7월엔 자유인들과 통일독일로 비전트립도

우리와 같이 1945년 분단을 겪은 독일은 1990년에 이미 통일독일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콜라스교회의 월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독일 국민이 통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며, 교회 예배당에서 시작된 월요기도회는 점차 교회 밖 거리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독일 전체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비전을 보며, ‘통일의 나라로 비상하라’ 주제로 오는 7월 10일(목)부터 16일(수)까지, 북한선교부와 젊은 자유인 30명이 독일로 비전트립

을 떠납니다. 이를 위해 매주 워크숍과 기도 모임을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통일한국을 소망하며 이번 비전트립이 민족 복음화와 북방선교의 소망을 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탈북다큐 보고 ‘속도전 떡’ 체험행사도

오는 6월 22일 북한선교주일, 선교관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상영합니다. 이 작품은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른 미국 제작 영화로, 탈북민들의 탈출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가슴 먹먹한 울림과 감동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자유인예배부에서는 북한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인기 간식인 ‘속도전 떡’을 만들고 나누는 시간과 교육부 아동부 공모전 전시를 통해, 복음통일에 소망을 담은 영락의 새싹들의 작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북한을 향한 전파선교로 잘 알려진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전파선교를 통한 북한선교’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대혼란의 시대, 복음통일의 기회로 준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인도-파키스탄 분쟁, 양안 갈등, 관세 전쟁 등 세계가 어느 때보다도 전쟁과 대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복음통일을 향해 나갈 기회입니다.

분단 80년, 비극의 세월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실천하며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80년! 통일의 미래로 비상할 시간입니다. **만날**

영락에 먼저 온 복음통일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혼란스러운 정체성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찾아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중 하나님을 만나며 진정한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힘들 때면 엄마한테 투정부리고 짜증내면서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게 했느냐”고 하며 엄마의 가슴에 난도질도 해 보았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나’를 찾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머나먼 길을 떠났고, 그렇게 ‘정체성’과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나’를 찾아, 진정한 자유 찾아 대한민국으로

하지만 자유 민주국가에 와서도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돈이라는 족쇄를 목에 걸고,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돈의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목표만 쫓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것같이 힘들고 슬펐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 통장에 숫자는 불어 났지만, 저의 가슴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찬 바람이 관통하는 듯 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난 가슴을 뜨거운 사랑으로 메워 보려고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저는



흑암과 거짓말이 가득한 외로운 바다에 빠져, 망망대해에서 허우적대며 내 생을 끝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생의 끝자락서 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셨고, 저의 눈물을 사랑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매주 주일이 기다려지는 기쁨 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전해지는 목사님의 설교는 저의 가슴을 뜨겁게 채워 주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영락교회는 1945년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들은 이야기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눈물 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들어 매월 첫째 주일, 자유인들과 영락의 성도가 선교관에 함께 모여 통일을 위해 예배드립니다. 통일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북한의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현재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2,600만의 부모 형제와 저희 교회 성도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 자유인들이 선교사님을 만나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3만 4천 명의 탈북 자유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복음통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통일 자유인들에게 사랑 나눠주는 일부터

올해 우리 교회는 80주년을 맞이합니다. 또 분단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긴 세월 분단의 역사 속에 정치적 이념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3만 4천 명의 탈북 자유인을 보내 주셨고,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전사로 복음을 전



하며 복음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전하는 안부 속에, 송금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북한 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으로 막힌 것 같고 견고해 보이지만 북한 정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뿌리가 썩어가고 있으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통일이 왔을 때 우리가 직접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옆에 먼저 온 탈북 자유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이 받은 사랑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동네방네 퍼져 나가는 것, 그것 이야기로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영락교회에 먼저 와 있는 복음통일,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한 가족으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한 번 더 주는 그것이야말로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이나영 성도 _ 자유인예배부, 동대문·중랑교구

軍선교의 모태교회 영락 재정후원 넘어 현장동행

흔들리는 다음세대, 복음의 기회는 살아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청년층의 급격한 이탈이라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디지털 세대는 교회를 낡고 권위적인 공동체로 인식하며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청년들을 만나고 계신다.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군대라는 사실이다.

군 복무는 청년에게 단절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매년 약 20만 명의 청년이 입대하고, 그중 많은 이가 군에서 처음 복음을 듣거나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 특히 군대에서 교회에 처음 나가거나 복음을 처음 접한 청년 비율은 매우 높으며, 입대 전부터 신앙을 가진 청년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선교가 단회적 전도를 넘어 한국 청년층의 복음화 비율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경직 목사님의 유산 위에 세워진 군선교

영락교회의 군선교 사역은 고 한경직 목사님의 믿음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다. 6·25 전쟁 중에도 전선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한 목사님은 “군대는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선포하며, 1972년 군선교의 최상위 기구인 현 군선교연합회(전 군복음화후원회)를 창설하셨고



수천 명의 장병이 말씀과 은혜로 세례받은 논산훈련소 진종세례식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하셨다.

그 결실로 영락교회는 전국 1,004개 군 교회 중 200여 곳을 단독 건축하고, 연합 건축까지 포함하면 총 650개의 군 교회를 건축했다. 그 외에도 군종목사 사역을 위한 오토바이, 장비, 물품 후원 등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다. 한경직 목사님의 “군인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믿음은 지금도 영락교회뿐 아니라 한국 모든 교회 군선교의 중심 철학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군선교 현장에 푸드트럭… 전도 지평 넓혀

군선교 현장에서는 전문 사역자인 군종목사(현역 장교) 및 군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장병들과 함께 숨 쉬고 있다. 군선교사들은 군종목사가 없는 곳에 배치되어 자비량으로 예배 인도와 교회를 섬기고 있다.

현장의 사역 중에는 목회자에 의한 사역 외에도 기독전우회(MCF: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활동이 있다. 각 부대의 기독전우회는 용사와 간부가 함께 예배



장병들과 간식을 나누며 복음의 대화를 열 수 있도록 돋는 푸드트럭 기증

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로 기능하며, 성경공부, 생일축하 등을 통해 장병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앙의 문턱을 낮추는 소중한 도구가 되고 있다.

영락교회는 현재 예장 통합 총회 소속 150여 명의 군종목사 및 군선교사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김운성 위임목사님은 총회 군선교후원회 회장으로서 이 사역들을 총괄하며 섬기고 계신다.

특히 영락교회는 군선교 현장에 푸드트럭을 2회 기증하여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푸드트럭은 찾아가는 선교의 수단으로, 장병들과 따뜻한 간식을 나누며 자연스러운 복음의 대화를 열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이는 ‘정직인 재정 후원’을 넘어 ‘동적인 현장 동행’으로 군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이다.

또한 믿음의 징표인 세례식은 군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다. 영락교회는 해마다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5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외에도 선교부 및 자

치단체별로 직·간접적으로 군부대 교회의 세례식을 지원하고 있다.

신세대 장병 눈높이에 맞춘 선교

디지털 세대는 시각적이고 감성적인 소통 방식에 익숙하다. 복음을 담는 공간이 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메시지도 마음에 와닿기 어렵다. 영락교회는 이를 인식하고 군 교회 환경 개선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선교부와 제2여전도회는 군 교회 3곳을 리모델링하고, 쉼터 겸 선교 공간인 카페 한 곳을 새로 지었다. 대표적으로 천봉교회는 비좁은 예배 공간을 확장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리모델링하여 장병들에게 ‘교회는 나를 환영하는 곳’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조이(Joy)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전담 목회자와 장병이 주 안에서 기쁨(Joy)을 나누며 신앙의 문을 여는 전략적 공간이다.



쾌적한 공간으로 확장된 천봉교회 예배당



장병들에게 복음 제시와 교제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이(Joy)카페

제대 이후에도 이어지는 신앙… 복음의 다리를 놓다

군 복무 중 복음을 접한 장병이 제대 후에도 신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돋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대 이후 학업과 삶에 쫓기다 보면, 제대 후 교회에 등록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이 흐려지기 쉽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평계가 있지 않은가?

영락교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전도부 및 자치단체에서 군부대를 찾아가 복음 제시, 교제 등을 통해 제대 이후에도 용사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청년부(대학부) 인원의 참여가 적으나,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는 청년부 인원들로 구성된 전도팀 3개 팀이 거의 매주 정해진 군부대 교회를 방문해 용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교제를 나누며, 연락처 교환과 상담 등을 통해 제대 이후 자연스럽게 교회와 신앙생활로 이어지도록 돋고 있다.

군 복음화의 모태 교회로서, 전도·양육·교제 사역 강화를 통해 이러한 흐름을 보완해 가고 있는 영락교회는, 특히 올해 6·25 구국성회를 통해 김운성 위임목사님이 장병 1만 명을 대상으로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하실 예

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장병-민간교회 결연 행사'를 통해, 제대 후 영락교회 등록과 함께 신앙생활의 소프트랜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부는 최정예 팀이 기도로 준비하며 직접적인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와 참여가 다음세대를 위한 불씨

"군인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경직 목사님의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다음세대를 품고 일으키는 교회의 사명 선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19~20) 이 명령은 지금도 군선교 현장에서 계속 성취되어야만 한다. 한 명의 장병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때, 청년이 살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참여가 모여 다음세대를 위한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김평주 안수집사
선교부 군선교1팀장
서초교구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길 - 6.25의 진실을 잊지 말자!



한국전쟁 75주년… 학도병으로 참전

6월 25일이 되면 북한 공산정권의 무력 남침으로 발발했던 한국전쟁이 75주년을 맞이한다. 해방 후 5년간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아, 우리 국군보다 몇 배 우세했던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2개월 만에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남한 전 지역을 석권하며 공산정권 수립에 돌입했다. 그러나 자유진영 16개국이 참가한 유엔군이 파견되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했고, 성공 확률이 1/5000이라는 반대주장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성공한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 때문에 후방보급로가 차단된 북한군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넘어(10월 1일) 압록강 강변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가 불가피했다. 평양 고급중학교 졸업 후 1·4후퇴 직전 월남한 나는 대한민국 육군에 학도병으로 입대했다. 그 후 2년여 공방전 끝에 1953년 7월, 오늘의 155마일 휴전선을 경계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1951년 11월 육군 101사단 3연대 본부 정훈과 시절 필자(1950년 12월 학도의용대 입대)

1,129일간의 참화…이젠 ‘잊혀진 전쟁’ 취급돼

1,129일간 계속된 이 전쟁에서 국군 14만 7천여 명이 전사했고, 70만여 명이 부상했으며, 미국 전사자 3만 4천여 명, 부상자 10만여 명, 여타 유엔군 장병 1만 4천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60만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 370만여 명의 이재민, 30만여 명의 전쟁미망인, 10만여 명의 전쟁고아, 1천만여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여 당시 3천만 인구 중 1천 9백만여 명이 전쟁 피해를 보았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천문학적인 재산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그처럼 참담했던 전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이나 전국 곳곳에 건립된 격전지 전승기념탑에서나 겨우 느낄 뿐이다. 그래선지 6·25전쟁은 ‘잊힌 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연 잊혀도 될 전쟁인가?



강인덕 은퇴안수집사
제24대 통일부 장관
중구·용산교구

핵까지 갖게된 북한…우리 방어태세 문제 없나

북한은 6·25남침의 실패를 명분 삼아, 지난 70년간 인민 대중을 기아와 빈곤으로 내몰면서 GDP의 25~30%를 군사력 건설에 쏟아부었다. 일반 무기는 물론 생물학무

기, 화학무기 그리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이제는 김정은 자신이 “전쟁재발 시 핵 공격으로 남조선을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우리 국군은 북한의 일반 전력을 제압할 정도의 군사력과 이에 더하여 주한미군과 연합군을 편성하고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확대 억제 전략에 의존하면서, 핵 공격징후가 포착될 시 ‘킬체인(Kill Chain)’ 전략으로 제압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승패의 관건은 인민대중의 전쟁 수행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유사시 굳건히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방어의식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지도급 인사들

한마디로 필자는 6·25전쟁 이전에도 그려했지만, 오늘 날의 우리 국민, 특히 지도급 인사들의 대북 의식이 너무나 안일하며 심지어 일부 인사는 북측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정계, 언론계, 노동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심지어 종교계에서까지 우리의 빛나는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하하며, 한미동맹을 미국의 식민지화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운운하는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조직화하고 있다.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5년 4월, 김일성은 대남공작원들에게 내린 교시에서 남한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전개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이중 우리 교계에서 활동할 공작원들의 활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남조선에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이다. 교회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현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임을 얻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미끼를 잘 던지면 목사, 신부들도 휘어잡을 수 있다”

당시 중앙정보부 북한정보국장이던 필자는 즉시 보안기관과 전 종교계에 경고를 보낸 바 있었고, 공직을 떠난 후에는 평양 고급중학교 동기동창인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¹⁾ 강영섭 위원장과도 만나, 더 이상 남한에 있는 교회에 대한 무모한 공작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교회지도자 중에는 북한공작에 휘말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같은 친목 조직을 결성하여 반정부, 반체제,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공개적으로 전개했다. 예를 들면, “양키 추방과 연방제 통일만이 민족의 살길(김일성의 주장)”이라고 주장하며 자살한 A 목사, “극악무도한 미제 와 한통속인 이명박 정부를 멸하여 달라”고 기도한 B 목사 등 우리나라 건국 과정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 왜곡되고 편향된 좌익적(심하게 말하면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에 미혹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북에 교회에 대한 공작 중단하라” 출곧 경고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필자는 김일성과의 오찬에 참가하고 대남사업 담당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경한 바 있다.

1) 1946년 공산당의 정치적 선전 목적인 일환으로 발족된 어용 기구



2002년 일본에서 열린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제8차 도잔소회의'. 필자(가운데)와 강영섭 조선그리스도연맹위원장(오른쪽).



영락교회 본당 옆에 있는 김응락 장로 순교기념비

이때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 초청, 범 교단 여의도 대성회를 준비하시던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준비위원회 목사님들에게 평양 방문 소감을 말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우리의 소원은 백두산 나무를 찍어 무너진 북한의 성전들을 재건하는 것인데,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필자는 잠깐 망설인 끝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당장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100년 후에 하자고 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려야지요”라고 답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 정권은 작년 ‘2개의 민족, 2개의 조선’을 선언했다. 과거 70여 년간 남북 당국은 공히 “6·25전쟁을 겪은 남북 간이지만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서로 대화하며 남북교류 왕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의 김정은 정권은 155마일 휴전선에 수천 개의 지뢰를 둔고, 2중 3중의 철조망을 가설하여 ‘2개 국가의 국경선’이라 낙인찍었다.

이제껏 우리가 밤낮없이 기도하는 복음통일의 길이 표면적으로 점점 멀어진 느낌이다. 그러나 이 기도

는 단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 이를 위한 세밀한 대북 선교전략·전술, 선교방법을 연구하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특히 그들이 과거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6·25 전쟁의 경험을 되새기며 오늘의 변화된 정세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

김응락 장로 순교의 교훈 잊지 말아야

나는 우리 교회 본당 앞에 세운 김응락 장로님 순교기념비를 지날 때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 말씀을 되뇌곤 한다. 내 나름대로 우리가 겪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복음통일의 길을 모색하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은 6·25전쟁! 그 교훈은 향후 우리가 지향하는 복음통일의 길을 밟아가는 데에서,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후대 젊은 세대는 선대가 겪은 이 6·25전쟁의 진실을 잊지 말고 되새기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평화롭고 풍요한 우리나라가 전통적 유물론자, 반기독교 세력이 지배하는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만날**

6·25 전쟁고아들의 아버지 딘 헤스 대령이 들려준 한국전쟁

한국전 10대 영웅… 공군, 10주기 추모비행·콘서트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로서 안식년을 맞아 미국 오하이오 데이튼의 공군대학원(AFTT)에 교환교수로 가 있던 2009년 5월, 딘 헤스(Dean Hess) 예비역 공군 대령님을 처음 만났다. 92세의 고령에도 딘은 휴버 하이츠 고교의 보조교사로서 아주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다. 손주와 컴퓨터 항공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는데, 손주한테 거의 매번 진다면서 공산군보다 더 센 손주라고 조크도 하셨다. 이후 근 5개월간 매주 일요일 조찬을 함께하며 한국전 경험담을 들었다.

한국군 조종사 양성부대장으로 250여 회 전투 출격

딘 헤스 소령은 제2차 세계대전시 자원입대하여 유럽 전역에서 300회 이상 전투 출격한 베테랑 조종사였고,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자 한국군 조종사 양성부대인



1950년 딘 헤스 소령과 그의 애기 F-51 무스탕 전투기

6146부대장으로 보임되었다. 그는 한국 조종사를 훈련하는 한편, 공산침략군을 막기 위한 전투출격도 250여 회나 기록했다. 1인 다역인 그를 미공군에선 'One Man Air Force'라 불렀다.

대구 동천비행장에 주둔한 6146부대장 헤스 소령은 대구로 피난 내려온 이승만 대통령을 임시관저에서 처음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헤스 소령이 전하는 그날그날의 전황소식을 무척 반기워하면서, 관저로 자주 불리 심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홍성표 안수집사
북한선교부 차장
관악·동작·금천교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이승만 대통령께 한국군 비행훈련·전황 수시 보고

제6146부대는 전황에 따라 사천, 진해, 김포, 여의도, 평양, 대전, 다시 여의도로 이동하면서 비행훈련과 전투 임무를 계속했다. 특히 진해 시절, 헤스 소령은 미 제25 사단의 지원요청으로 하루에 12회나 전투 출격하는 대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한 딘 헤스 부부. 왼쪽부터 미 대사,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부인 메리, 딘 헤스, 이승만대통령, 미8군사령관.

기록도 남겼다. 낙동강 방어전을 치루던 25사단의 긴급 요청으로, 진격하던 공산군들을 차단 격퇴하기 위해 공습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시 진해로 피난했고, 헤스 소령은 관저로 자주 찾아뵙고 전황을 보고드렸다.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서울이 함락될 때 겨우 쟁기 한복 서너 벌로 대통령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헤스 소령이 일본에 항공기로 출장 가는 길에 양장 몇 벌 사오겠다며 옷 치수를 여쭙자 프란체스카 여사는 “국민들이 전란에 헐벗고 굶주렸는데 어찌 좋은 옷을 탐하겠는가”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한다.

고아들 거두며 제5공군고아원 기초 닦아

중령으로 진급한 무렵 여의도기지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고아들을 내쫓으려는 부대원들을 설득하여 따로 천막을 치고 음식잔반들을 공급하며 거두게 했는데, 금방 1백여 명으로 불어났다. 부족한 군수물자로 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을 서울의 중앙고아시설로 보냈다. 후에 이는 제5공군고아원이 되었고, 사령부 산하 모든 부대가 이 고아 구호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 6146부대도 평양의 미림비행장으로 이동했다. 평양에서의 2개월 작전기간 동안 양측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했다.

1000명 고아 제주 긴급후송 기적 일궈

북진의 기쁨도 잠시,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서울은 다시 적의 수중에 떨어져, 당장 급하게 1천여 명의 고아를 제주도로 긴급 후송해야 했다. 곡절 끝에 5공군의 C-54 항공기 15대가 기적처럼 나타나 김포에서 제주도로 고아들을 실어 날랐다. 제주도의 한국보육원은 그 수용인원에 비해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여 닥치는 대로 긴급 지원을 끌어대야 했다.

1천 명이 넘는 고아원에 신발은 겨우 200켤레밖에 없었다. 며칠 후 뜻밖에도 300달러가 모금되어 일본에서 600켤레의 신발을 구입해왔다. 당시 한국군 조종사 대령의 월급은 8달러였다. 부대 내에 목로주점은 열어 주당 수익금 500~1,000달러씩을 고아원으로 지원했다. 고아들을 위한 자선사업이라고 알려지면서 한 잔에 5센트하는 술 한 잔을 마시고 달려를 기부하는 장병이 많았다.

전쟁 초기, 유엔군은 한국공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조종사 수가 늘어나고 정비기술도 향상되면서 신뢰하게 되었다. 항공기도 F-51 무스탕을 75대나 보유하게 되면서 유엔군도 한국공군의 능력을 인정하고 중요한 작전임무를 배당하게 되어 전투 출격도 급증했다.

귀국명령 받고 제주 고아들과 눈물의 작별

5월 하순 제5공군사령관 팀버레이크 장군의 출두명령

서를 받고 무슨 작전회의인가 하며 대구에 도착하니, 장군은 250여 회의 전투출격 공로를 치하하며 한국공군의 훈련상황이 완벽하니 이제 한국을 떠나 귀국하고 명령했다. 허탈한 마음을 안고 여의도로 돌아와 생사를 같이했던 전우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고, 다음 날 제주도로 날아가 부대원들과 고아원에 작별을 고할 때는 더 이상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부산으로 가 이 대통령을 찾아뵙고 대구의 제5공군에서 제6146 부대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끝으로 모든 공식절차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자서전 '배틀 힘' 출간… 한국고아 직접 입양도

헤스 중령은 귀국 후 1956년에 자서전 '배틀 힘(Battle Hymn: 전송가)'을 출판했다. 톱 배우 록 허드슨이 주연한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에 큰 흥행을 올렸고, 수익금 전액을 제주도 고아원으로 보냈다. NBC 방송의 <This is your life!>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도움을 호소하자 미국 전역에서 고아를 위한 구호품이 쇄도했다. 텍사스의 농부 제임스 르볼론드는 젖소 20마리를 기부하여 C-123 수송기로 제주도로 공수, 고아들에게 우유를 공급토록 했다. 헤스 중령은 6세된 한국고아를 직접 입양하여 키우셨다.

뒤늦게 전달한 이승만의 휘호 1점과 감사의 편지

다시 2009년, 헤스 대령님과 주일 조찬을 함께 하던 중 편지를 보여주시며 아는 분이냐고 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영어로 쓴 편지였다. 생면부지이지만 이제 서야 헤스 대령님의 은공을 듣고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마침내 상봉하게 됐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이사



단 헤스 역할의 록 허드슨이 출연한 영화 <전송가> 속의 한국보육원 장면

로서 일하던 중 헤스 소령의 사연을 접하게 됐고, 한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서 이승만대통령의 휘호 1점과 현금 2천 달러를 헤스 대령님께 드렸다. 헤스 대령님은 깊은 감사를 표했다.

대 이은 한국고아 사랑 “백선엽장군상 상금 기부”

2024년 말 헤스 대령의 둘째 자제인 에드워드 헤스(Edward Hess)의 전화를 받았다. 제3회 백선엽장군상을 선친이 수상했는데, 형제들이 그 상금 3만 달러를 한국의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니 주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제주도의 흥익원으로 연결하여 기부하도록 했다. 올해는 헤스 대령님 서거 10주기이다. 5월 22일 제주항공박물관에서 자제분 3형제가 참석한 가운데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추모식을 거행했고, 23일에는 공군발전협회·한미안보연구회 공동후원으로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딘 헤스 토크 콘서트에 1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스 대령님을 회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만날**

은혜로 살아가는 천로여정

2000년 역사 속에 상하지 않는 단어, ‘은혜’

영락교회 산상기도회 첫날 저녁, 최병락 목사님께서 전하신 첫 문구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주제로 4월 21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집회에서, 목사님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첫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복음의 반전을 전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는 20번, ‘기뻐하라’는 19번이나 반복되며, 억눌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바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멈추어 버린 것 같은 상황에도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고 역설적으로 고백한 바울을 통해, 전적인 믿음과 사명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웃음과 감동을 곁들인 목사님의 간증이 더해져, 사명자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승윤영 성도
서대문·은평교구

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타인과 비교하지 않게 되어 겸손히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던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시며, 그의 본질과 상처를 아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직책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아시는 주님께, 저 또한 겸손히 나아가야 힘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고, 주님을 처음 만나 느꼈던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중2 때 주님 만난 기억 생생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여름, 동네를 돌며 여름성경학교를 홍보하던 트럭을 따라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즐거워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고, 2년 후 부모님도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신앙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마음이 힘들었던 중·고등학생 시절, 하굣길마다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무척 산기도원으로 학생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마지막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주위를 둘러보니 마룻바닥에서 비좁게 붙어 잠든 성도들이 눈에 들어왔고, ‘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곳에 와 있을까?’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하다 잠깐 눈을 붙였고, 곧 새벽에 배 참석 안내를 받았습니다. 피곤해서 강단 아래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아 졸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에 불덩이 같은 뜨거움이 느껴졌고 눈물이 터지며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반복되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기도한 뒤에야, 강사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순간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순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청년회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며, 어느덧 인생의 반백 년을 지나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도회 전까지는 나라 안팎의 혼란 속에서 어떻 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지 애통함이 컸습니다. 그

러나 첫날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주셨고, 낙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조급함 대신, 전적인 믿음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현재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해 악을 분별할 지혜를 가르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년 말, 학교 기도모임을 인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주저했지만, 이제는 믿음의 행동을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매주 학생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자로 서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이 진리는, 오늘도 제 삶의 고백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순간, 저를 살게 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제게 주어진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날**



진정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산상기도회, 다음세대 키우는 귀한 사역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린 제65회 산상기도회는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주제로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최병락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산상기도회를 총괄하는 목양부에서 교구사역지원 부팀장으로 섬기며, 단순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되새기고, 신앙을 더 견고히 다지는 귀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3040 부모 세대들이 산상기도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산상기도회(사진들)를 담당한 교육부와 소통하고 조율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부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다음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어린 두 자녀도 어린이산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즐겁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교육부



김은혜 집사
고양·파주교구
목양부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덕분에 마음 편히 봉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여 은혜를 누렸습니다.

뼈 때린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산상기도회에서 마음 깊이 다가왔던 말씀 중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베소서 1:23)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최병락 목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저를 깊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되물었습니다.

평소 김운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 의전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씀하셔도, 실제 우리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기에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상기도회 기간에 강사 목사님을 위한 준비와 의전을 옆에서 지

켜보면서 내가 속한 교회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새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아부 교사로 주일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올해 초부터 목양부에서 심재수 장로님의 진두지휘 아래 임원분들이 신년기도회, 오이코스, 나의기도, 산상기도회 등을 준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저의 봉사가 진정한 헌신이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목양부의 많은 분이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들이며 섬김과 수고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헌신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으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행하는 은혜를 깨닫다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 끝났다’ 평가해도 고개를 흔드십시오.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선포 말씀을 듣고,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란트짜리일지라도 기쁘게 섬길 것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믿음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이겨냈듯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지라도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단순한 교회 활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저 자신이 한 달란트짜리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저와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온전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

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저의 작은 헌신이 교회 성장과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남**



주님의 계획 속에 선택되는 삶

동네 초등생 오빠 손 이끌려 교회에 간 세살바기

내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도 세 살에서 네 살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당시 가족 중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우리 엄마에게 “아줌마, 아기를 교회에 데려가도 돼요?”하며 허락을 받았던 듯하다. 자의식이나 개인의 자유의지로 뭐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나는 갑자기 엄마로부터 잘 모르는 동네 오빠의 손에 인계되어 교회에 가게 되었다. 그 교회는 긴 의자 대신 신발을 벗고 들어가 방석 위에 앉아서 예배를 비롯해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다.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모르겠다. 교회 갈 때는 동네 오빠 손 잡고 걸어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잡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의 등에 업히거나 목마를 타고 집에 돌아오곤 했다. 말씀이 자장가로 들렸고, 교회의 그 자주색 방석은

나의 몸에 딱 맞는 매트리스가 되었다. 선생님의 눈과 입은 여러 아이를 향해 있었고, 한 손은 잡든 내 몸 위에 얹혀 있었다.

윤희라 불린 아이, 교회 그림숙제는 온전히 엄마 뒷

동네 오빠와 교회 선생님은 나를 윤희라고 불렀다. 교회 선생님이 이름을 묻는 말에 ‘김윤영’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김윤희’라고 들린 것이다.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나는 의도하지 않게 가명이 생긴 것이다. 그때부터 교회에서의 내 이름은 ‘윤희’가 되었다.

가끔 교회에서 숙제를 내주곤 했는데, 종합장을 펼쳐 들고 엄마에게 갔다. 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잡고 무언가를 그릴 나이는 아니다보니 교회에서 해오라는 숙제는 엄마의 몫이 되었다. “엄마, 기도하는 사람 그려줘” “엄마, 아브라함 얼굴 그려줘” 그러면 엄마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 주셨고, 나는 이것을 들고 교회에 갔었다.

세살바기는 무슨 마음으로 교회에 갔던 걸까

우리 엄마는 뭘 믿고 동네 초등학교 남자아이에게 나를 맡길 수 있었나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나는 교회라는 곳을 알았고, 다니면서 차츰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다.



김윤영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홍보출판부

아마도 추측하건대 나를 데리고 갔던 남자아이는 교회에서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전도 대상으로 눈에 띈 것이 내가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나를 교회로 데려갔고, 이것이 복음의 씨앗으로 평생 나의 가슴에 남겨진 이야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의 과거의 일을 회상해 보니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큰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화가 꿈꾸던 소녀, 기독교 브랜드 디자이너로

교회와의 첫 만남을 통해 나는 주님을 알아갔고, 집안의 내력이기도 했던 화가를 꿈꿨다. 초등학교 6학년 즈음에는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어른이 되면 그림이 섞인 좀 더 쉬운 성경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나중에 학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고, 디자이너로서 유수의 많은 대기업과 관련된 일을 해 왔다. 하지만 세상에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나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해오던 일을 서서히 정리하며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005년경부터 기독교 관련 용품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독교 브랜드를 만들었고, 성경 필사와 관련된 노트 및 기독교 용품을 제작·유통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러한 선택 이후 일과 생활 전반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는데, 경제적 어려움,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소송, 질병과 상해 등 수많은 고난이 줄줄이 따라 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과정 속의 나는 주님 보시기에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손을 주께 넘겨 드리는 도구 되고 싶어

어렸을 적 엄마의 손에서 동네 초등학생의 손으로, 다시 주님의 손으로 나의 손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만든 브랜드를 통해 누군가의 손을 주님께 넘겨 드리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내 삶의 여정에 주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이야기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셨음을 확신한다. 앞으로도 함께하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조금 덜 불안해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고 싶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만남**

새롭게 보는
영락교회
80년사

영락교회 본당 옆에는 김응락 장로의 순교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김응락 장로 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널리 알려진 또 다른 영락교회 신자의 순교 이야기가 있다. 바로 김창화 집사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는 월드비전(World Vision)의 창립자인밥 피어스(Bob Pierce)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어 미국 사회 전역에 알려졌다. 김창화 집사의 순교이야기는 이미 『만남』을 통해 널리 소개된 바 있다. 필자는 2024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월드비전 국제본부 아카이브(Archives)에서 김창화 집사의 순교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죽은 목숨>(Dead Men on Furlough)에 관한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에 보관 중이다.

“죽은 목숨” (Dead Men on Furlough)

순교자 김창화 집사의 이야기

밥 피어스 목사가 영화로 제작

하나님 위해 목숨마저 헌신

미국 기독교인들 마음 울리다



순교자기념관에
봉안되어 있는
김창화 집사의 초상화

월드비전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김창화 집사의 순교이야기

김창화 집사의 순교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5년 3월 30일 태어난 김창화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러나 소련군의 진주로 시민은 약탈당하고 기독교인들은 박해받으며 고난을 겪었다. 그는 1946년 3월 10일,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월남하고, 4월 1일부터 서울사대부속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주변에 복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

어 마음 아파하던 그는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 학교에 기독교반을 만들었다. 이 모임이 초기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학생 수가 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지닌 다른 학생들과 마찰이 생겼다. 1947년 7월 10일 오후 6시경, 공산주의 성향의 학생 15명이 김창화 집사의 집에 침입하여 그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6·25 전쟁 발발 후,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민주 애국자들을 박해했다. 김창화 역시 학교 내 좌익 학생들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그는 “진리를 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담대히 맞섰다. 보안대로 끌려간 그는 소지하고 있던 성경을 빼앗기고 찢기는 모욕을 겪었다. 이어 “왜 월남했는가?” “무슨 목적으로 기독교 학생반을 만들었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대
영락교회80년사 집필자

는가?” 등의 심문 끝에 공산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창화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인계되었다.

1950년 8월 4일 오전 10시,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그는 길에서 큰딸을 만나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한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위대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사형장에 도착한 그는 5분간의 기도 시간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며 가족, 자신을 괴롭힌 공산주의 학생들, 그리고 조국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가 끝난 뒤 그는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외친 후 무릎을 꿇었다. 곧 세 발의 총성이 울렸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

월드비전과 김창화 집사의 순교

그렇다면 김창화 집사의 순교이야기는 어떻게 밥 피어스와 연결되었을까? 밥 피어스는 1950년 봄, 약 한 달 반 동안 한국에 머물며 전도여행을 다녔다. 그때 통역을 맡은 인물이 바로 한경직 목사였다. 두 사람은 이후 월드비전을 공동 창립하게 된다. 당시 밥 피어스는 전국의 여러 학교를 돌며 복음집회를 열었고, 한경직 목사는 본인 교회의 김창화 집사가 학생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밥 피어스는 김창화에게 성경과 구제금을 전달했다. 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공산주의자들은 김창화 집사를 친미주의자라고 의심했다.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 된 김창화 집사는 결국 앞서 언급한 대로 1950년 8월 4일 순교했다.

1950년의 여름은 무척 길었다. 한경직 목사와 몇몇 신자들은 전쟁 발발 직후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으나,



영화 <죽은 목숨> 포스터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자 다시 상경했다. 한경직 목사는 서울로 돌아온 뒤 김창화 집사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 서울사대부속중학교 뒷산에 임시 매장되었던 시신을 찾아 미아리 공동묘지에 다시 안장(이후 2007년 11월 20일 영락교회공원묘원에 안치)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무렵, 밥 피어스 역시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전쟁고아를 본격적으로 돋고 있었다. 한경직에게 김창화의 순교이야기를 전해 들은 밥 피어스는, 당시 부산으로 피란 온 김창화의 부인 백옥현(영락교회 권사) 등 전쟁미망인을 위해 ‘다비다모자원’을 설립하고, 이후에도 유족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했다.

밥 피어스와 영화 ‘죽은 목숨’의 의미

밥 피어스는 김창화의 순교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

D-34

Personal History

Name: Mr. Kim Chang Wha	MAR 31 1955
Birth Date: March 30th 1915	
<p>On August 15th 1945,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oppression. All people were greatly pleased with the happy day. But unfortunately the North Korea was taken possession by the Communists. They gradually began to plunder people's free and to persecute the Christians.</p> <p>Being unbearable their persecution, Mr. Kim Chang Wha who was a Christian went through 38th boundary line from the North to the South Korea with his wife and daughters, on March 10th 1946. And they all arrived in Seoul without any accident on the way.</p> <p>He got to be on duty as a teacher of mathematics at the Attached Middle School of the Seoul Normal University on April 1st the same year. But he felt sorry that he couldn't generally find any one who seeks after truth, around him. "For what purpose did I come to the South?" he thought. He was trouble in his mind. But at last he came to make up his mind to have to let the hot blooded students perceive the truth of God. So he organized a Christian Class in the school. First there gathered those who came from the North Korea. But in consequence of that the meetings of the class gradually became rich in contents, there happened a conflict between the Christian class members and the Red-students. In the meantime, one day about 15 students of terrorists with clubs and other things in their hands invaded into Mr. Kim's room at about eighteen o'clock, and they inflicted an extreme wound on him. It was July 10th of 1947.</p> <p>On the Christmas day of 1949, Mr. Kim and his Christian students were having a Christmas party. In the midst of the party, unexpectedly some handbills flew into the party room. The bills said, "If you continue to Christianize the students, your life shall be dangerous."</p>	

김창화 집사의 순교 관련 문서의 일부

고자 계획을 세웠다. 영화의 제목은 〈Dead Men on Furlough〉로 정했다. 이 표현은 본래 레닌이 모든 공산주의자를 “휴가 중에 있는 죽은 목숨”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레닌은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목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휴가 중인 군인이 국가의 부름에 언제든지 목숨을 바치듯이, 공산주의자도 그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밥 피어스가 이 표현을 영화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기독교인들 또한 공산주의자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에 부르시면 죽은 목숨처럼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며, 바로 김창화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다.

밥 피어스는 선교사역을 알리기 위해 필름을 도입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새로운 문명 기술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던 신세대 사역자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영상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전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이미 1948년 중국을 방문한 뒤에는 〈중국의 도전〉이라는 영화를 제작했고, 1950년 한국 방문 이후에는 〈38선〉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그리고 밥 피어스는 6·25 전쟁 직후 또 다른 영화, 바로 〈죽은 목숨〉을 제작하게 된다.

1954년 11월, 이 영화와 관련된 언론 자료에 따르면, 이 영화는 공산주의와 맞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영웅의 이야기이며, 주인공은 “밥 피어스의 개인적인 친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서 이 필름은 “한국기독교인의 진짜 스토리”에 기초한 것임이지만 “그의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것은 아직도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김창화는 ‘채 목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공산주의자들은 그에게 기독교 신앙이 거짓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한다. 그 자백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채 목사는 마지막 순간 “기독교 신앙은 참이다”라고 고백한다. 이에 분노한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그를 사살한다.

〈미션 임파서블〉의 작가, 김창화의 스토리를 새롭게 각색
 하지만 김창화의 이야기는 영화화를 위해 상당 부분 각색된 것으로 보인다. 각색을 맡은 이는 존 오디아(John O'Dea)로, 그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오디아는 김창화의 순교 이야기를 1950년 서울에서 실제로 벌어진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과 연결해 재구성했다. 1950년 6월 28일, 서울에 진입한 인민군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약



<죽은 목숨>에서 공산군에게 잡힌 채 목사. 이 영화에서 김창화 목사는 '채 목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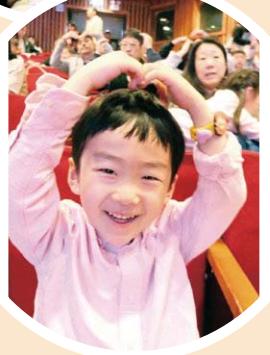
1,000명의 국군 부상자와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부상병을 이송해 치료했다. 영화에서 '채 목사'의 부인은 이 참혹한 학살을 목격한 인물로 등장하며, 이를 외부에 알리려 한다. 이에 공산주의자들은 채 목사에게 부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방송하도록 강요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처형당한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낸 바 있다.

밥 피어스는 이 영화에 직접 출연하여 자신이 경험한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영화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아시아계 배우들이 출연했다. 채 목사 역은 리처드 루(Richard Loo)가 맡았는데, 그는 중국계 미국인 배우로 007 영화에도 출연한 바 있다. 공산당 장교 역할은 키 루크(Keye Luke)가 맡았는데, 그는 20세기 중반 가장 널리 알려진 아시아계 배우로서, 그레고리 펙과 함께 여러 작품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채 목사의 부인 역은 진 왕(Jean Wong)이 맡았으며, 그녀 또한 당대 최고의 아시아계 여배우로 꼽혔다. 월드

비전은 이 영화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정상급 배우들을 기용했으며, 약 20만 달러에 이르는 제작비를 투입했다. 또한 이 영화에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한국 이민자들이 기꺼이 출연에 참여했다.

밥 피어스는 미국 전역을 돌며 직접 영화를 상영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상영 이후 많은 이가 “우리가 어떻게 한국 기독교를 도울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왔다. 동시에 어떤 이들은 “만일 공산주의자가 미국을 침입할 경우에 미국 기독교인들도 이같이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을 것인데, 그럴 경우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은 목숨으로 내어 놓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밥 피어스는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을 위해 헌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며 살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물었던 것이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순교적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했다. **한남**

주님 따라가는 길 복음 팡팡, 재미 팡팡





지난 5월 3일(토), 제28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가 50주년기념관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꽃잔치는 '하이 탐험대! 그 길을 따라서' 주제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마무리된 꽃잔치는 뮤지컬 형식의 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복음팡팡 놀이터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아이들은 복음팔찌를 직접 완성하며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유아유치부 교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먹거리와 세심한 섬김 덕분에, 많은 가정이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와 긴 연휴 가운데에서도 총 700명(어린이 250명, 부모 300명, 교사 150명)이 함께하며 복음의 기쁨과 공동체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닫는 예배에서는 '우리 가정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질문 앞에서, 참여한 모든 이가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날

김연주 전도사_영아부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올해 청년회 회장단으로 부름 받아 두려움과 설렘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총무로서 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부족하지만 80대 회장단과 함께 일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역자 보내주신 하나님

5월은 선교비전과 하기선교 준비로 무척 바빴습니다. 2024년 하기선교 때는 거진중앙교회 팀장으로 섬기며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동역자를 보내주셨습



서동현 성도
청년회 부총무
주는나무

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은혜 속에서 하기선교를 마쳤을 때, 팀원들과 지교회에서 감동의 눈물과 축복의 말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굿즈 팔고 찬양 버스킹… 선교비전 새도전

2024년에는 맡은 팀을 중심으로 준비했다면, 올해는 회장단의 일원으로 전반적인 물품 준비와 일정 기획에 동참하며 회장단의 일원으로 선교비전 행사를 마쳤고, 지금은 8월에 있을 하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비전 행사의 경우, 8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인 각종 공사 일정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선교비전 행사공간(50주년기념관, 베다니광장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회장단 모두가 처음에는 많이 염려했습니다. 매주 청년회 예배 후 회장단실에 모여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며 여러 의견을 나누고, 치열

한 토론도 하며 선교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봉사관 앞 마당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일일카페와 더불어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굿즈 판매, 그리고 찬양버스킹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새롭고 쉽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가능한 한 모든 회의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려 노력했던 모습입니다. 자칫 '행사'를 잘 치루는 것에만 치중해 인간적인 열정과 의욕만 앞설 수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선교비전의 본질을 점검하며 함께 나누고 기도 가운데 준비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역할을 주시고 믿음과 삶을 업그레이드해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다음 사역들이 기대됩니다.

청년회 하기선교에도 많은 기도 부탁

해마다 진행하는 선교비전과 하기선교가 코로나로 한동안 중단되었지만, 지금은 회복되어 다시 선교와 봉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와 선교가 감사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도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교역자님들과 자문위원회, 나아가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8월에 있을 청년회 하기선교에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47차 하기선교봉사

- 일정: 8월 13일~17일
- 장소: 경상북도 포항 6개 교회
- 사역: 벽화사역, 이·미용, 마사지, 노방전도, 의료사역, 마을잔치 등 각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
- 기도제목

1. 대전교회

- 3·1운동 참여교회로서 민족 복음사역 감당하는 교회
- 지역·지역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 양백교회

- 성경본질 회복·지역 잘 섬기는 교회
-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3. 삼송교회

- 성령으로 부흥, 새 생명 구원의 역사
- 말씀 충만·성령 충만·예수 충만

4. 청진교회

-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
- 교회의 건축부채 신속 청산

5. 유계교회

- 교회와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 재정 개선, 목회자 부부의 건강

6. 흥안교회

- 지진으로 망가진 사택 재건하게
- 재정문제 해결을
- 마을 어르신 건강과 영혼 구원

문의: 80대 회장단 선교부, 청년회 교역자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작은 손길이나마 건넵니다

청년회 봉사팀 '이음' 경북 산불피해현장 위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5:16)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무엇이든 열심히 섬기던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궁금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돌보지 않으실까?' 지금 돌이켜 보면 어리숙한 질문이었지만, 당시의 저는 저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리고 이 난제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곁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마태복음 25:45)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에 저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홈리스 자립을 돋는 빅이슈 잡지 판매 동료로, 다문화 혹은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으로, 뇌병변장애를 앓는 친구의 손과 발로, 독거 어르신의 말벗으로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베소서 4:11-12)



전홍진 집사
청년회 이음팀장
꿈꾸는 땅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은혜 입은 청년회 사회봉사팀 '이음'은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나아가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사랑으로 잊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영락애니아의집과 영락노인전문요양원에 방문해 산책과 말벗을 해드리고, 교회 주변을 말끔히 청소하는 플로깅 활동과 유기동물보호센터 봉사 등을 통해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예배당 청소, 전도폭발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서울역 주변 홈리스 분들을 대상으로 간식 나눔, 노방전도 등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삶의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구호 물품을 분류하고, 화재로 전소한 밭을 일구는 봉사에도 함께했습니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4)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직 자그마한 손길에 불과하지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의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날

CebC

Children's English Bible Community

영어로 소통하는 아이들 교사들은 신앙의 동반자



국제감각 지닌 크리스천 리더로 키우자

안녕하세요. CebC(Children's English Bible Community)에서 총무를 맡은 이재원 집사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CebC 사역을 함께하며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 온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이 단순히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ebC는 아이들이 성경을 영어로 배우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국제적 감각을 지닌 크리스천 리더로 자라기를 바라는 귀한 비전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CebC의 가치를 다루고자 합니다. CebC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는 더 이상 낯설거나



이재원 집사
CebC 총무
고양·파주교구

어려운 '학습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국어처럼, 혹은 또 다른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영어로 기도하며, 영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영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신앙 여정에서 선생님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며, 때로는 함께 웃고 기도하는 신앙의 동반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대상 주일 오후 2시 교육관 4층서 예배

CebC는 매 주일 교육관 4층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기에 저학년과 고학년 간 눈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줍히기 위해 선생님들이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주일 예배 시간인 오후 2시는 다른 부서 등에서 활동이나 봉사에 주력하는 시간대이다 보니,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실 선생님을 모시는 일이 늘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1학년 신입생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CebC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이 10명에서 11명의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혹여 아프시거나 개인적인 일로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 선생님은 빈자리에 대해 염려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이러한 마음이 총무로 섬기는 저의 마음에도 전달되어 이 부분을 더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 흘려보낼 선생님 더 필요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는 보석 같은 CebC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합류하기 훨씬 전부터 변함없이 10년이 넘도록 아이들 곁을 지키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CebC가 오늘에 이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고, 서툰 영어 표현에도 귀 기울이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믿음의 본이 되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 속에, 섬기는 우리가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부족한 선생님 숫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CebC 아이들에게는 영어 실력이나 뛰어난 가르침 기술보다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있어 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관심, 서툰 질문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답해 주는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교사라는 귀한 직분으로 함께 섬겨 주실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이 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러시아어예배

Русскоязычное богослужение

나그네의 고통에 위로와 희망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 찾기



한국이란 낯선 곳에서 새 삶 시작한 사람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누군가는 가족을, 또 누군가는 지금까지 이뤄왔던 사업과 꿈을 전부 접어두고 낯선 한국 땅으로 발을 디뎠다. 그들은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다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주민들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혼란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갑작스레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러시아어예배 성도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 언어, 문화를 접하며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느낌일



차안톤 전도사
선교부 유학생선교
러시아어예배

것이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추구하는 목표이다.

매주 오전11시 봉사관 501호서 예배 교제

우리 러시아어예배는 고국을 떠나온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소망을 찾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다. 매 주일 오전 11시 봉사관 501호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교제하고 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예배 참석자들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예배를 통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레위기 19:33~34)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타국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환대를 받을 때 자신이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소속감을 찾고 고국을 떠나온 이품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

여러 민족 모여 연합찬양집회… 하나님 임재 경험

지난 3월에는 러시아 교회 공동체와 연합찬양집회를 했다. 연합 찬양집회를 통해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연합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는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니

라 우리 삶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우리의 소망이었다.

이날 찬양집회에서는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찬양이 울려 퍼졌다. 여러 민족과 언어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자리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듯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다. 각 공동체가 준비한 찬양을 통해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전쟁 중에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각자의 언어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기도회 시간에는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눈물을 흘리며 조국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전쟁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을 넘어서,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7)

앞으로도 이러한 연합찬양집회를 지속해서 이어가며 더 많은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려운 현실에도 신앙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린다. 만날



❶ 시리아인 아빠와 딸 ❷ 드림교회에서 열린 '원주와 문막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연합기도회' ❸ 합심기도하는 베트남 성도들

주여, 원주 문막을 축복하소서!

선교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 전도

가정의 달 5월 연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교부 유학생선교파트 외국어예배팀 성도 40여 명과 제2남선교회 회원 50여 명이 연합하여,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의 일환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인구 약 17,000명 중 외국인 근로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문막읍은 복음의 손

길이 닿기 어려운 전도 사각지대이며, 이슬람과 이단이 은밀히 퍼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여, 원주 문막을 축복하소서!'라는 이름으로 드린 이 사역은, 한국외향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고군분투하는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 5일 가정의 날, 우리 모두 다 함께!" - 복음의 잔치

5월 5일, 문막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다민족이 어우러진 전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중국, 베트남, 시리아, 에티오피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들이 참석했고, 등록과 기념촬영,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잊지 못할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공기놀이, 구슬치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한 국의 전통 골목 놀이에는 푸짐한 상품이, 행운권 추첨에는 우리 교인들이 후원해주신 후원품과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경품이 걸려 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



정재훈 안수집사
선교부 유학생선교 차장
용인·화성교구



었던 것은 외국어예배팀 성도들이 직접 만든 러시아 복음밥, 몽골 튀김빵, 베트남 월남쌈, 미얀마 녹차잎 샐러드를 함께 나누며, 음식 안에 고향의 향수를 담고 복음을 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주 문막의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회

전도사역 후, 원주시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연합기도회는 초교파 교회들이 함께한 영적 연합의 장이었습니다. 김운성 위임목사님은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전도사역과 기도회를 위해 휴일을 반납한 참석자들을 언급하시며, 국내 외국인 선교의 중요성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드림교회 장순직 담임목사님은 "전 세계 최고의 오지랖은 예수님이셨다"며, 연휴에 문막에서 진행된 '영락교회의 오지랖'에 큰 도전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연합기도회가 원주 문막 지역의 영적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 복음의 불길이 퍼지기를 소망하며 참석한 내·외국인 모두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치악산에서 올린 감사의 기도

다음 날, 우리는 치악산 비로봉에 올라 원주와 문막 땅을 내

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열매 맺기를 간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전도의 골든타임, 지금이 기회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국 땅을 찾아온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전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외국인 사역의 경험이 없던 지역 교회가 그 중요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둘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외국인 전도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선교부의 연례 사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외국어예배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훈련의 장을 가졌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며

다음 전도사역에는 현지 교회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무보험자를 위한 의료봉사 등 다양한 유인 요소도 고려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기도로 진행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50주년 기념관 지하 주차장에서 올린 짧은 기도처럼, 우리의 다음 걸음도 오로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기도 "주여, 원주 문막을 축복하소서!"가 이 땅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믿습니다. **만남**



M국의 선교 거점… 은혜복음교회 현당예배

불교 인구가 약 88%에 이르는 M국에서, 6%에 불과한 크리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함께하시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을 다녀왔다. 은혜복음교회는 황관중 선교사와 딤람친 현지 목사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2024년 8월 21일 기공예배를 드린 후, 2025년 5월 7일 현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날 김진우 목사와 선교부 부장, 그리고 해외선교부원, 제3여전도회 중앙회 임원들은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현당예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현지 성도 300여 명과 외빈 40여 명도 동석했다.

성전건축기념 테이프커팅 후 진행된 현당예배에서 김진우 목사는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황관중 선교사가 이를 통역했다. 특히 밝은 표정으로 손뼉 치며 어른들과 함께 예배에 집중하는 어린이 50여 명의 눈 빛, 몸짓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이 느껴졌다. M국의 전통의상을 곱게 차려 입은 여전도회 회원들과 테디족의 찬양으로, 예배는 축제의 분위기로 이어지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은혜복음교회는 1층(45평)에 사무실 및 교육공간, 2층(60평)에 예배당을 갖춘 아담한 규모로 건축되었다.

이날 건축경과 보고에 따르면 은혜복음교회는 2021년에 황관중 선교사가 매입한 성전 대지 위에, 2015년에 매입했던 청년센터를 매각한 수익금으로 건축하게 됐다. 내부 기자재를 제외한 총 건축비는 한화로 약 1억 3천8백만 원이고, 그 외 교회 내부 비품은 영락교회 선교부와 3여전도회뿐 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이 참여해준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봉헌될 수 있었다며 건축 경과보고를 통해 건축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황 선교사는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가 M국 선교의 거점이 되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만남**



박유경 권사
3여전도회 회장
강남교구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월 19일(월)부터 ‘영락 나라사랑기도회’가 시작되었다. 나라를 위해 모든 성도가 간절히 기도의 불을 지폈다. 기도회는 5월 19일(월)~6월 2일(월) 낮 12시에 ‘정오기도회’로 드리며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한경직 목사의 힘찬 음성설교로 시작된 기도회는, 생전에 설교하신 모습을 떠올리며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부목사들의 말씀과 기도 회의 열기와 각자의 장소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모아져서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부르짖음으로 표출되었다.

‘나라사랑 철야기도회’는 5월 23일. 30일(금) 오후 10시~새벽 5시 30분까지 본당에서 2시간씩(휴식시간 30분 포함) 총 4부로 진행되었다. 23일(금) 철야기도회 1부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우리는 모여 기도해야한다’는 절실힘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기도회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애가의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절망의 밑에 흐르는 소망을 노래하자”며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권면했다. 이어 조두형 목사는 ‘하나님 사랑’이란 주제로 성도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30분의 휴식 시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으로 성도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2부에서는 김형찬 목사의 ‘나라사랑(열왕기상 19:18)’, 3부 김진우 목사의 ‘교회사랑(요한계시록 2:1~5)’, 4부 황재영 목사의 ‘이웃사랑(요한복음 15:11~14)’을 주제로 진행된 기도회는 횟수가 거듭 될수록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며 강해졌다. **만날**

* 발행일정상 두 번째 철야기도회(5월 30~31일)의 내용은 담지 못함.

취재 이재향 기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림’이란 이름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

안녕하세요. 저는 6교구 강서·구로·양천 지역과 교육행정·IT미디어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강하림 전도사입니다. 2025년 여름을 맞이하는 계절에 성도님들과『만남』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중등부에서 사역하며 다음세대를 섬기는 기쁨을 누렸고, 올해부터는 교구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깊은 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처음 인사를 드릴 때마다 제 이름에 관해 종종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 이름을 유명한 브랜드 이름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제 이름의 뜻으로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 강하림은 ‘편안할 강(康), 물 이름 하(河), 수풀 림(林)’으로,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편 1:3)



강하림 전도사
강서·구로·양천교구
교육행정
IT미디어부



이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맑은 물을 마시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는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푸르름을 간직합니다. 저는 목사이신 아버지와 기도의 사람인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과 사랑이 담긴 이름처럼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어 늘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자랐습니다.

신앙 공허해지며 바울 같은 체험 원했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신앙이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곁은 단단하지만 속은 비어 있는 대나무처럼 저의 신앙도 겉모습만 단단해 보일 뿐, 그 속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채웠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 마음을 강하게 울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180도 변했던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처럼 분명한 체험을 주시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기다려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깊은 고민이 이어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느냐? 내가 너를 이끄는 모든 길이 나의 은혜가 아니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느냐?”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대학 시절부터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재학해서 학생회장으로, 기독학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 있는 자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특히, 복음화율이 3%에 불과한 캠퍼스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에게 큰 도전이자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움 이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영락중등부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중등부에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서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목사님께서는 “거인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라” “부서에서 사역하며 전도사님의 컬러를 찾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중학생이 가장 무섭다는 세간의 말과는 달리, 막상

중등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학생들과 열정 있는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고, 제겐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길 묵묵히 걷겠습니다

이처럼 저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바다의 큰 파도가 아닌 시냇가의 맑은 물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시련이나 고난을 통한 강력한 신앙 체험은 없었지만, 매 순간 제 인생의 시냇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속해서 베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나를 부르신 주가’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담긴 의미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멎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깊이 뿌리내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남**



개회예배



전날엔 폭우로 미세먼지 청소하고
당일엔 꽤 청한 날씨 주신 하나님



영락가족 행복운동회

지난 5월 17일, 대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750여 명의 교우가 모인 가운데 영락가족운동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전날 폭우 속에 간신히 천막과 현수막만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당일 아주 맑은 하늘과 날씨를 주시며 영락가족운동회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1, 2, 3, 4 남녀 선교회와 청년회, 청년선교회, 부부선교회, 자유인예배부, 국제예배부가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운동 경기가 펼쳐졌으며, 박 터트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마음 점프릴레이, 출다리기, 어린이 계주, 뒤집기, 징검다리 건너기, 탁구, 보디가드 피구, 여성 발야구, 탱탱볼 축구, 청년대학 축구, 남녀혼성 계주 등이 진행되어 다윗팀(작수 교구) 1,700점, 모세팀(홀수 교구) 1,990점으로 모세팀이 이겼습니다. 어린이들은 에어바운스와 물총 게임 등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문화행사로는 올드보이즈의 하모니카 연주, 지크로스의 난타 공연, 부부선교회의 '내안에 부어주소서' 특송과 천국멋쟁이 공연, 예수향기팀의 부채춤 공연이 운동회를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천국에서 더 크고 성대한 영락가족운동회를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두희 안수집사 _ 제2남선교회 부회장, 성동·광진교구



하나님이 찾는 찬양인도자로 서겠습니다



제1회 '예배자 학교' 8주 훈련 마쳐… 80명 수료

제1회 '예배자학교'가 높은 관심과 기도 속에 8주간의 훈련을 성황리에 모두 마쳤다. 3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전병주 목사님(예배부)의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8차에 걸쳐 진행한 '예배자학교'는 짧은 홍보 기간에도 30명 정원에 90명 이상이 지원하여 예배와 찬양을 향한 갈급함과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예배자학교는 김운성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에서 시작되었고, 그 소망의 씨앗은 선교부 문화선교 최진규 집사님의 제안을 통해 구체화했다. 예수전도단 인도자 출신이자 현재 엔지니어로 섬기고 있는 최 집사님은 3년 전부터 '모세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품고 기도 하며 준비해 왔고, 이를 김운성 목사님께 제안하면서 예배자학교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최 집사님은 큰 규모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찬양인도자가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예배자로 바로 서는 훈련과 찬양 사역자 발굴 및 양성'에 집중하고자 했다. 또한 '훈련된 예배자가 예배 현장 곳곳에 세워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왔다. 이러한 비전은 이분야에 경험이 많은 박소망 전도사님의 합류로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고 한다.

찬양인도자 첫 관문… 수료자 대상 실전훈련 남아

훈련 참가자는 막연히 찬양에 관심을 가진 이들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제 찬양 인도 경험이 있는 이들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했다. 훈련은 공통으로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에는 실용음악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실전 역량을 본격적으로 훈련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실력에 따라 기초반, 심화반, 사역자반으로 나뉘어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되며, 사역자반을 수료한 이들은 각 악기팀으로 구성되어 실제 예배 현장에서 찬양인도자로 세워진다.

현재 중·고등부, 청년부, 수요1부, 수요2부, 금요찬양, 주일4부·5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락교회의 찬양 사역은, 앞으로는 각 제직부서와 특별 사역, 어린이 부서, 평생 대학 등 여러 예배의 자리로 확장할 예정이다.

세심한 준비와 열정적 강의 '감동의 8주'

첫 모임부터 많은 스태프가 '예배자학교' 로고가 새겨진 단체 티를 입고 곳곳에서 안내했으며, 바인더 형태의 워크북과 필기도구 파우치, 시작 전 제공된 다양한 음료 수, 소그룹 모임에 준비된 간식, QR코드를 활용한 출석 체크 등 세심한 준비가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진행은 크게 예배·강의·조별 모임으로 이루어졌는

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미리 구성된 찬양인도팀의 인도로 예배와 찬양이 시작되었고, 이어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가 이어졌으며, 이후 30분 동안 조별 나눔을 통해 그날의 은혜를 깊이 나누었다.

강사님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예배의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분들이었기에,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삶의 경험에서 우러난 메시지와 찬양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전달해주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첫날 강의에서는 예배부 전병주 목사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제목으로 두 부류의 성경 인물을 소개했다. 한 명은 신앙인으로 대표되는 사도 바울이고, 한 명은 종교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헌신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라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차이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에 있었다.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릴 때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기뻐한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구나’를 깨닫고, 자신이 추구할 바를 수정하고 기쁨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예배 인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예배의 본질적인 자세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강사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찬양 인도자는 실력과 신앙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둘 다 갖추어야 한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서로를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등을 강의하며 깊이 있는 통찰과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예배자학교 수강생들은 매주 강의를 요약해 랜드에 게시하고, 추천 도서의 독후감을 제출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성실히 따라갔다. 그 결과, 8주간 개근한 수강생들을 포함하여 80명이 수료했다.

수료식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님은 “신앙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이며, 직분은 졸업이 있지만 예배에는 졸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개근한 집사님 두 분 짧은 간증을 끝으로 풍성한 간식과 선물을 나누며, 작은 축제처럼 즐긴 ‘예배자학교’의 막을 내렸다. **만남**

취재 김영란 기자

‘석 달 부모, 평생 부모’… 전세대가 함께 드린 가족주일예배

예배위원회

지난 5월 11일 가족주일을 맞아 2부~4부 예배는 자녀와 함께 ‘전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주일예배’를 드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예배 중 2부 중등부(배근홍 집사 가족), 3부 유아부(김영원 집사 가족), 4부 초등부(강순옥 권사 가족)의 대표기도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세 가정의 기도에는 1세대 할아버지, 2세대 아버지, 3세대 자녀가 함께 참여해 3대가 이어가는 믿음의 대를 보여주었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양증맞은 어린이들의 성경봉독(출애굽기 2:1~10)은 성도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석 달 부모, 평생 부모’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자녀를 낳는 것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사랑과 헌신, 인도와 훈계를 통해 ‘영적 아버지’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진 봉헌의 시간에는 2부 홍영남



장로 가족(사진), 3부 양영재 집사 가족, 4부 김원태 집사 가족이 은혜의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예배 마지막에는 전 성도가 손을 내밀어 가족을 향해 축복송을 부르며, 서로를 위한 축복으로 전 세대 예배의 의미를 더했다.

2025년 권사 수련회… 공동체 훈련 워크숍과 함께 열어

권사회

2025년 권사 수련회가 5월 13일(화) 본당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오정선 권사(권사회 회장) 인도로 심양섭 권사 기도, 성경봉독, 권사회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날 강사 김휘현 목사(동일교회 담임)는 요한복음 20장 19~23절을 본문으로 ‘보냄 받은 권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기도와 선교, 전도에 힘쓰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보냄 받은 권사’로 살아가자”라고 강조하고 축도한 후, 권사회가로 1부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2부에서는 식사와 다과로 친교, 교제의 시간이 이어졌고, 3부 순서로는 이은경 권사(3교구 지회장)의 기도에 이어 권사회 중창단의 특송, 탁현수 목사의 인도로 권사회 공동체

훈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탁 목사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상상만 해도 행복해’라는 주제로 ‘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미션을 제시하고, 그룹별 공유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탁 목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라”며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길 격려했다.

권사회는 매주 수요1부예배 후 선교관에서 ‘전교인 수요기도회’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교구별 담당 릴레이 기도회’를 열어 매일 오전 6시, 정오, 오후 10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교육주일 특별예배… 장기근속교사 45명 시상·격려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과 교회교육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교육주일을 맞아 교육부(부장 조용철 장로) 주관으로 특별 예배가 5월 18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예배는 방덕종 목사의 인도로 교육부장 조용철 장로의 기도, 교육부연합찬양대의 찬양, 김충섭 목사의 설교, 교회학교 초등부 주미니 학생의 간증, 근속교사 시상, 교사들의 특송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충섭 목사는 신명기 6:4~9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기게 하며 '나의 앞날 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기도 했던 고백을 전하며 고별 설교를 했다. 이어 주미니 어린이가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간증글을 읽어 내려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교사들의 특송으로 은혜를 더 했다. 이날 특별 예배에서는 장기근속교사 45명(40년 근속교사 3명 외 30년: 7명, 20년: 9명 10년: 24명)의 시상을 통해 교사들의 수고를 격려했다.



2025년 근속교사 명단

[40년 근속 : 3명] 임미영, 정순걸, 홍주경

[30년 근속 : 7명] 정복희, 공영아, 정현미, 윤혜성, 정성덕, 김순남, 김정희

[20년 근속 : 9명] 강순민, 김준경, 장정자, 김채아, 김귀성, 황선주, 김영미, 홍정임, 권오택

[10년 근속 : 24명]

구정이, 박희정, 추연성, 홍성매, 김태영, 최창례, 한은영, 윤혜정, 옥민지, 김지연, 구혜주, 윤혜영, 이진우, 이경자, 이은석, 유창원, 정재욱, 권혁빈, 최미혜, 최은영, 김철순, 최윤미, 선우수미, 박현옥

“5월, 기도해 드릴까요?”… ‘MAY I PRAY?’ 운동 펼쳐

교육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MAY I PRAY?' 기도 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기도운동은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온 성도가 함께하는 '나의 기도'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자녀, 가정, 교회학교 교사, 청년을 위한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카드를 중심으로 4주간 진행되었다. 'MAY I PRAY?'라는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

가 담겨있다. 첫째는 '5월(MAY)에 기도하자'는 의미이며, 둘째는 '기도해 드릴까요?'라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성도들은 이를 통해 서로를 위한 기도의 다리를 놓으며,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남권 산불·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성금 전달

영락교회

지난 4월 24일 김운성 위임목사와 김순미 장로, 박홍준 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를 방문해 총회장 김영걸 목사에게 국내외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2억 5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에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 기금으로 2억 원 ▲황관중 선교사를 통해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5천만 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운성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이 모인 현금과 교회 재정을 합쳐 마련된 성금이 잘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은 올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긴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루속히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위 성금을 포함한 총 5억 2천만 원의 대외지원금은 대외 지원 심의위원회와 임시 당회(4월 20일)에서 의결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산불 및 미얀마 지진 피해 지원: 3억 5천만 원

- 총회: 2억 원
- 미얀마 황관중 선교사(총회 경유): 5천만 원
- 월드비전 지원: 5천만 원
- 해비디트 지원: 5천만 원

- 2025년 사학미션컨퍼런스 후원금: 1천만 원

- (사)한국미디어선교회 후원금: 1천만 원

- 기독교역사박물관 지원: 5천만 원

- 울릉도 선교 백주년기념관 지원: 1억 원



영락미술인선교회 제19회 정기전 개최… ‘비상하라’ 주제

선교부

문화예술을 통해 기독 미술을 구현해 내는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 문화선교의 영락미술인선교회(회장 위영혜 권사)가 올 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여 ‘비상하라!’를 주제로 제19회 정기전이 5월 21일(수)부터 26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이즈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38명의 회원들은 각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표현하여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다. 정기전 개막예배는 5월 21일(수) 위

영혜 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문화선교담당 박용준 목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한복음 4:13-14)’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제2부는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가 기독미술강연을 했다. 영락미술인선교회 회원들은 회화, 조각, 미디어 및 설치, 공예,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군부대 및 장애인 시설에 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 2025 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25 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이 지난 5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영락수련원에서 열렸다. 국내외 여러 교단 목회자 사모들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예배 시간에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무엇을 보일 것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세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 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파송예배 시간에는 이철신 원로목사가 '기도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포이메네스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영적지도자의 삶을 살자"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은 고요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강의를 듣는 침묵 영성수련이다. 참석자들은 "상처 받은 많은 일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음을 깨닫고, 느끼고, 사랑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섬겨주신 영락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하남미사노인복지관, 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 체험센터 열어

영락사회복지재단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은 5월 22일(목),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 쓰다) 경기 팝업 체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체험센터는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생활에



서 자주 접하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 실제 장소에 기반한 스토리텔링형 교육 콘텐츠를 접목해 현장감을 높였다. 특히 반려 AI로봇, 하체 웨어러블형 로봇 '삼성 봇핏' 등 디지털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리빙랩 존', 로봇 바둑 등 디지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딜링존(디지털+힐링)'도 마련되어 시니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는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CSR) 사업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이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는 물론 취업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하남미사노인복지관에서 3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영락세계성가합창제

THE 80th ANNIVERSARY OF YOUNGNAK CHURCH
YOUNGNAK INTERNATIONAL
SACRED CHORAL FESTIVAL



미국 무디코럴 Moody Chorale, USA

호주 페스티벌 스테이츠맨 코러스 Festival Statesman Chorus, Australia

싱가포르 코럴 아티스트 Choral Artists, Singapore

말레이시아 영 청소년 아카데미 Young Choral Academy Chorus, Malaysia

영락교회 시온찬양대 Zion Choir,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영락교회 호산나찬양대 Hosanna Choir,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영락교회 갈보리찬양대 Calvary Choir,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2025. 6. 1. sun 오후 6시(찬양예배 후)

영락교회 베다니홀

주최 영락교회 창립80주년 기념사업회

주관 기념사업회 행사준비분과



교역자
동정

김충섭 목사 사임

성동·광진교구와 사회봉사부, 평생대학을 맡아 사역해오던 김충섭 목사가 5월 19일 주일을 끝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금호교회(성동구 금호동 소재)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8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김 목사는 안양·수원교구와 상담부, 갈보리찬양대 사역을 시작으로 제자양육훈련부, 베들레헴찬양대, 시온찬양대를 맡아 사역해 왔다. 이임 설교는 5월 19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있었다. 김 목사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신명기 6:4~9)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영락에서의 8년간의 사역을 마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금호교회 <https://myjesus.net>





안세희 은퇴장로 별세… 연세대학교장으로



안세희 은퇴장로가 지난 5월 10일(토), 향년 97세로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았다. 1928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출생한 고인
은 한국을 대표하는 핵물리학자로서 한국원자력학회, 물리학회 회장을 역
임하며 국내 과학 발전에 기여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연세대학교 제9·10대 총
장을 지내며 학교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었다.
고인은 교회에서 1976년 12월 집사 안수, 1979년 12월 제14회 시무장로로 장립된 이
후 1998년 12월까지 당회원으로 교회 35주년기념사업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친교부
부장, 예산위원회 위원장, 당회인사위원회 위원, 50주년기념사업회 회장, 당회기획위
원회 부위원장으로 교회공동체를 섬겼다. 또한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 아시아기
독교대학 연합회 이사, (재)한빛육영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교계활동을 펼
쳤다. 장례 예식은 5월 13일(화)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연세대학교장으
로 거행되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용화 은퇴권사와 2남 1녀를 두었다.

교역자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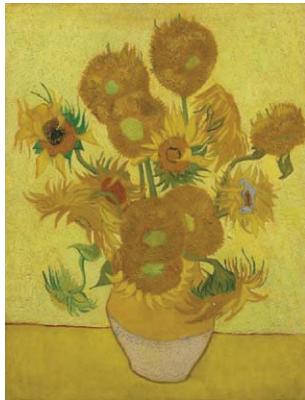
이창조 목사 사임

노원교구와 제자양육훈련부를 맡아 사역해오던 이창조 목사가 5월 11일 주일을 마
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일산충신교회(고양시 일산서구)의 담임목사로 부
임했다. 2022년 1월,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이 목사는 강남교구와 목양부, 갈
보리찬양대 사역을 시작으로 예배위원회, 갈릴리찬양대, 임마누엘찬양대를 맡아
사역해왔다. 5월 11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드려진 이임 설교에서 이 목사는
시편 27장 4절을 본문으로 '라스트 댄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영락에서의 목회
3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산충신교회 <http://iscs.or.kr>



화폭 가득한 은혜와 감사의 열정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Sunflowers) 시리즈는 단순한 정물화를 넘어, 그의 깊은 신앙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고흐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선교사로 활동하며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비록 목회자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삶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해바라기에 담긴 황금빛 색채의 변화는 창조주께 받은 은혜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고흐는 이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해바라기 Sunflowers

1888~1889 제작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해바라기는 고흐의 내면세계와 신앙,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6월, 영락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열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 바로 잡습니다

지난 「만남5월호」 44쪽 “유튜브 영상 만드는 순수 청년들 - 대학부 영상 동아리 '레마(Rhema)'"는 대학부 내 3개 사역팀 중 하나인 미디어팀으로 정정합니다.

2025년 6월호 통권 615호

발행 2025. 6.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김기선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김대준 김영란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지예원

시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교열 김용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



월간 「만남」 e-Book

새아기·새가정·군입대…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새가정



김영주, 서지영 가정

군입대



류화평

새아기



2



3



1



4



5



6

4 정지오(정상원, 박지윤 가정)

5 김하람, 김예람(김만우, 송유미 가정)

6 이지오(이지승, 노현정 가정)



해바라기 (Sunflowers, 1888~1889)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